

477번째 죽음, 사측의 무리한 사고수습 과정에서의 2차 폭발사고 현대중공업 고 이○○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창사이래 477번째 중대재해 사망
현대중공업 고 이○○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10시 30분
- 장소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
- 순서 : 발언1 -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허중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
발언3 -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본부장
발언4 - 이정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김광식 노안1부장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정우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 2026년 4월 9일(목) 13시 35분경, HD현대중공업 함정사업부 잠수함 공장에서 창정비 중이던 P971호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한 명의 노동자가 실종됐다. 고 이○○ 노동자는 결국 4월 10일(금)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 잠수함을 수리하던 도중에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 잠수함 수리라는 국가와 시민을 지키는 핵심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에서 현대중공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나타났다. 얼마 전 대전 안전공업

에서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교훈에도 불구하고 폐쇄성이 높은 잠수함 내 작업 시 화재 발생 비상대응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평상시 1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이었다. 탈출하지 못했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밀폐구역 내에서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하청업체, 단기계약 노동자라는 ‘위험의 외주화’ 공식은 또 다시 반복되었다.

○ 구조 작업에서 사측은 더욱 무책임했다. 복잡하고, 충전된 배터리로 인한 폭발위험이 명백함에도 사고수습에 급급해 작업 초기 물을 뿌리고, 노동자를 투입해 2차 폭발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죽음을 목도한 노동자들을 또 다른 위험에 내모는 현대중공업을 금속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노동부의 역할도 부재했다. 구조 작업 시 구조에 투입된 노동자가 처할 위험이 명백하여 현대중공업지부의 요청으로 현장에 온 노동감독관은 ‘노동’ 감독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사측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구조작업을 지켜보기만 했다. 또한 화재 원인과 폭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사고가 난 잠수함과 동일한 잠수함의 작업중지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 현대중공업에서만 477번째다. 또 위험의 외주화다. 연이은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다. 금속노조는 또 다시 발생한 중대재해에 조의를 표하며 노동조합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언론노동자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만)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 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및 노동 담당 기사는 메일링리스트 등록, 텔레그램 채널, kmwu.kr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